

(2026년 9월 22일 화요일 5면)

구청장의 오만과 독선 더 이상은 안됩니다



김안나 의원
(삼전동, 잠실3동)

구청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 “구청장 역시 주민이 뽑은 일꾼”이며 “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”고 말씀하셨습니다.

그렇다면 서로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특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의회가 우려를 표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인사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.

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.

송파구의회는 구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.

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충분히 소통할 때 구민을 위한 행정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.

구청장께서는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, 의회와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.